

[ 시티 & 피쳐 ]

광주 시내버스 노선 내달 확 바뀐다

87개 노선으로 확대...요금 100원 올려 1,000원

市, 개편안 확정

다음달 준(準)공영제 시행에 맞춰 개편키로 한 광주 시내버스 노선이 확정됐다.

광주시는 12일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77개 시내버스 노선을 87개 노선으로 늘리는 대신 20~30%에 달하는 중복노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개편안으로 ▲배차간격 단축(10분대) ▲승객 10% 증가 ▲연간 79억 원 절감 등은 물론 개별 노선에 따른 책임성 강화 등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 첨단 40, 113번은 입목 90번 등으로 표기된다는 것이다.

또 급행 간선 버스는 빨강, 간선버스 노랑, 지선 버스는 녹색을 칠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 간 유기적인 환승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수단 간 1시간 이내 무료 환승을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배차간격 단축(10분대) ▲승객 10% 증가 ▲연간 79억 원 절감 등은 물론 개별 노선에 따른 책임성 강화 등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요금을 100원 인상을 해 1천원 선을 받는 안(선인 기준)을 물가대책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행 버스요금(현금)은 성인 900원, 중·고생 650원, 초등생과 200원 대가 주어진다. 현행 120번

/김주정기자 jnews@



11월 시행 광주 시내버스 노선별 경유지



Table with 5 columns: 노선번호, 기점, 주요 경유지, 종점, 배차간격. Lists various bus routes and their details.

Table with 5 columns: 노선번호, 기점, 주요 경유지, 종점, 배차간격. Lists various bus routes and their details.



광주천 강대공 강대공들이 12일 오후 광주시청 뒤편 광주천 수중보 위에서 가을 풍어를 낚고 있다. /위적량기자 jrwi@

광주시 '일자리 창출 추진단' 운영

'광주지방 고용협의위원회'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나서기 위해 기능을 강화하고, 광주시에 '일자리 창출 추진단'이 구성·운영된다.

'광주지방 고용협의위원회'(이하 고용협의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자리 13만4천개 창출 등 지역 고용을 늘리기 위해 위원회를 지역 고용정책의 의사결정기구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시는 자동차·디지털가전·관광업 등 3대 주력산업에서 8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13만4천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 추진단'을 구성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로 했다.

박광태 시장은 "지방고용협의위가 고용창출·취업지 각종 고용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제도화할 것"이라며 "13만 4천개 일자리를 2010년까지 차질없이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news@

※일본 글씨는 주민의견 수렴해 조정된 노선.

Advertisement for 'Stylish' (스타이시) featuring interior design and furniture. Includes website URL www.stylish.kr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입대사업자 파격 직원 모집' (Recruitment for new entrants with special staff) for a real estate company.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recruitment details.